

『율리시스』의 「이타카」에 나타난 인간관계의 유비적 관점: 블룸의 귀가와 레비나스의 거주하기*

박 은 숙

I. 서론

『율리시스』(*Ulysses*, 1922)의 열일곱 번째 장, 「이타카」(“Ithaca”)는 주요원전인 『오디세이』(*The Odyssey*)의 구성과 맞물려 으레 ‘노스토스’(Nostos) 곧 ‘귀가’의 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율리시스』 연구에서는 ‘노스토스’라는 이 생소한 언어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가 밝혀지지 않은 바, 여기서는 논의에 앞서 이 말부터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 “노스토스”는 『오디세이』와 같은 “그리스 서사시의 한 장르”를 일컫는 그리스어로서 “트로이 영웅들의 항해를 통한 귀가(향)의 경험과 그 경험담”으로 정의된다(Bonifazi 481). 그러나 ‘노스토스’는 이처럼 ‘귀가’의 주제로만 한정하기에는 그 어원이며 의미가 사뭇 복잡하다. 보니파치(Anna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1481).

Bonifazi)에 의하면 원래 “노스토스”는 비단 집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다중방향성”을 내포한다(506). 예컨대, “노스토스”는 어원에 따라 “치명적 위험으로부터 살아남는 것”, “불특정 목적지에 당도하는 것” 등 다양한 의미를 띤다(501). 그럼에도 이 말이 유독 ‘귀가’로만 알려지게 된 것은 호메로스(Homer)가 그 개념을 “그리스 영웅들의 트로이원정으로부터 바닷길을 통한 고향으로의 무사 귀환”으로 축약해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노스토스”에 “귀가(향)”의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505). 즉 호메로스는 “노스토스”에 “집으로의 회귀”라는 의미를 덧붙여 사용하지만, 본래 이 말은 “회귀”를 반드시 “집”과 관련짓거나 이로써 “지리적인 움직임”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506). 현 논의는 「이타카」에서 ‘귀가’로서의 ‘노스토스’의 뜻에 근거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그 원뜻이 함축하는 이러한 ‘다중방향성’을 더욱 상세히 연구해 볼 계획이다.

그런 한편 ‘노스토스’의 광범위한 함의에도 실제로 『율리시스』에서 이 모티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5”(Stanford 127)밖에 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이는 ‘방황’의 모티프가 전체비중에서 “3/4”(Stanford 127)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원전에서 귀가의 전체비중이 “1/2”(Stanford 127)에 상당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구성의 편향성은 『율리시스』에 대한 연구 동향에도 적잖이 영향을 준다. 일차적으로 모티프의 비중이 클수록 연구주제도 그만큼 광범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황’의 모티프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을 한두 갈래로 특징하기 어려운 반면, ‘귀가’의 모티프에 대한 연구들은 어느 정도 정해진 범주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는 데서도 이러한 차이가 은연중 드러난다.

이제까지 「이타카」에 대한 연구들은 조이스(James Joyce, 1882~1942)가 밝힌 이 장의 집필 의도에 착안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 조이스는 한 편지에서 「이타카」를 “수학적 교리문답의 형식”으로 썼으며 이로써 독자들은 에피소드 안의 모든 내용을 “가장 대범하고 냉철한 방식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Ellmann 516). 실제로 이 장은 309개의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서사가 진행되어 다른 장들과도 확연히 구분된다. 그 어조도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해 수학이나 과학논문을 방불케 한다. 그에 따라 「이타카」는 그 특유의 서술방식이 학계에서 유독 큰 주목을 받아왔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매료되었던 학자들은 이 방식이 애초에 독자들의 궁금증을 대변하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교묘히 에두르고 감추어서 끝내 최종적인 해석을 어렵게 한다고 입을 모은다(Lawrence 561). 이어 “수학적” 암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리빙스톤(Michael Livingstone), 윌콕스(Joan Parisi Wilcox) 등의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이 에피소드에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Euclid) 등을 통한 다양한 수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일례로 윌콕스는 조이스가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여기에 응용한 것은 이러한 고도의 “수학적 정확함”으로 “우리의 만족할 줄 모르는 확실함에 대한 추구”를 되비추기 위함이라고 분석한다(644).

한편 천문학, 물리학 등 과학의 차원에서 「이타카」를 분석해 조이스의 세계관을 조망한 학자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플레이시만(Avrom Fleishman)과 치니츠(David Chinitz)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이스가 “바위처럼 메마른”(Joyce, *LI* 163, qtd. in Prudente 110) 교리문답식 서사로 시종 일관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일견 과학자들의 냉철함을 패러디한다고 본다. 플레이시만은 교리문답의 서술에서 “전지전능”한 응답자의 모습이 과학의 힘으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만족감에 찬 과학자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한다(384). 마찬가지로 치니츠도 「이타카」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서술을 “이성의 화살”(434)에 빗대어 그것이 “진보에 대한 낙관적 믿음”과 연결되는 “과학”(438)을 목표로 삼는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플레이시만이 강조하듯 “삶의 총체성”이 단순히 “과학적 관찰자의 객관성”뿐만 아니라 그 삶을 직접 살고 있는 “참여자[곧 인간]의 주관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 에피소드에 대한 수학적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밖에 「이타카」와 관련된 연구는 독특한 문장부호의 사용법, 원전과의 비교분석도 한 축을 이룬다.

그런 반면, 직접적으로 ‘귀가’의 주제를 다루는 연구는 손에 꼽힌다. 명색이 「이타카」는 ‘노스토스’의 장인데, 이 주제 자체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하는 것은 새삼 놀랍다. 이와 관련된 국외 연구에서는 처치(Margaret Church)의 연구가 거의 유일무이하다. 처치는 「이타카」에서 주인공 블룸(Leopold Bloom)과 그의 손님, 스티븐(Stephen Dedalus)이 함께 마신 “엡스 즉석 코코아”(U 17.355-56)가 원래 “일요일 저녁, 집안의 화로와 관계된 음료”(127)임을 강조한다. 풀어 말해, 코코아가 원래 가장 평온한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화로에 둘러앉아 마시는 음료인 만큼 이 음료가 「이타카」의 귀가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치에 따르면 이 에피소드에서 코코아는 “모호성, 역설, 부조리”(129) 등 복합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 처치는 조이스가 이로써 “모든 귀환의 우습고도 심각한 특성”(126)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종일과 이영심과 같은 연구자들이 「이타카」의 귀가의 주제를 다룬다. 이종일 교수는 이 에피소드에서 “모험과 귀가의 모티프”(135)를 “정과 동”(136)의 역학으로 해석해 이를 다시 “호기심과 안심”(136)으로 연결해 연구를 확장한다. 이영심 교수는 「이타카」와 한국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동일하게 주인공의 하루 동안의 방랑 후 “귀가”를 주제로 하는 데 주목하여 그 하루간의 방랑과 귀가에 담긴 “모호한 의미”(110)를 비교연구한다.

이 논문의 출발점은 「이타카」의 핵심 모티프인 ‘귀가’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이다. 현재로서는 원어의 구체적인 개념을 비롯해 모티프 자체에 대한 연구도 희박하다. 이 논의는 조이스의 귀가의 주제가 그보다 꽤 나중에 대두된 프랑스 국적의 철학자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 1906~1995)의 타자 윤리와 다분히 조응한다고 봄으로써 이러한 실정을 타개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 앞서 조이스의 작품 특히 「이타카」를 통해 조이스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사유 사이 공통성을 포착한 연구들은 드물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아이드(Marian Eide), 브라운(Pamela Brown), 윈터홀터(Teresa Winterhalter), 호간(Patrick Colm Hogan) 등의 학자들이 있다. 아이드의 경우 “레비나스가 윤리를 철학적 이해의 . . . 근간으

로 명명하듯, 조이스에게도 유티가 첫 번째 관심사”(40)임을 밝히면서 조이스의 문학이 유티적 문제와 결코 별개의 차원이 아님을 역설한다. 덧붙여서 홀랜더(Rachel Hollander)는 조이스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울프 등 조이스의 동시대 모더니스트들의 작품에서 레비나스의 유티적 사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홀랜더의 제반 연구는 무엇보다 20세기 이전의 문학이 타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공감을 강조했다면 20세기 이후에는 타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환대의 서사”(3)로 변모한 과정과 배경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의 연구는 귀가보다 서사적 형식에 무게를 두고 조이스와 레비나스를 비교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지향점이 다르다.

아직까지 조이스와 레비나스의 공통된 유티관에 대한 연구 지평은 의외로 협소하다. 보다 세부적으로 「이타카」를 레비나스의 이론에 비추어 혹은 그 역으로 분석한 기왕의 연구가 현재로서는 다양하지 않다. 이 경우, 두 인물에 대한 정보의 부족보다는 오히려 과잉이 이러한 현황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이스와 레비나스 모두 학계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크고 작은 공통점들조차 이미 기정사실처럼 여겨져 실질적인 연구로는 이어지지 못한 채 응당 간과되어 버린 것이다. 단적인 예로써 이 논문은 앞서 본 플레이시만과 치니츠의 과학적 해석에 삶과 그 주체의 다양한 국면이 결코 획일화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 레비나스의 유티관을 충분히 투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플레이시만과 치니츠의 과학적인 해석은 레비나스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이 논문은 상기한 연구실정을 고려하여 「이타카」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별들의 냉담함”(U 17.2226)이라는 표현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별들도 무심히 보면 사소한 배경 정도로 묻혀버릴 수 있는 한편 조이스와 레비나스의 공통된 유티관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띠기도 한다. 그에 따라 여기서는 먼저 귀가의 주제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음에도 서사적 위용에 내쳐 가려져 온 “집”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지닌 주요 함의를 개괄할 것이다. 이어 집이라는 공간과 그곳을 감싸고 있는 무한대의 밤하

늘을 주 무대로 펼쳐지는 블룸의 세계관과 거기에 동반한 손님 스티븐과 그의 관계를 그 하늘 위 별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작품분석을 통해 살필 것이다. 이로써 본고는 블룸의 귀가를 기점으로 일어나는 이 일련의 양상에서 조이스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조응점을 밝힐 것이다. 단, 레비나스와 관련해서는 그의 방대한 이론을 두루 섭렵하기보다는 논의와 가장 밀접한 거주자의 이론을 간략히 살피고 논의의 초점은 작품분석에 둘 것이다.

II. 본론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에 따르면 “집은 [드넓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할애된 작은] 하나의 구석”(4)이지만,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최초의 우주”(4)이기도 하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중요한 공간에서 어떻게 거주하느냐에 따라 그곳이 작은 구석이 될 수도 있고 넓은 우주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누추한 집에도 거기에 애착이 쌓인 거주자에게는 아름다움”이 있다. 반면 그 집에 대해서 달리 묘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집에서 오래 거주하지 않아 그곳을 진정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거주자이다. 달리 말해 집에 대한 애착은 단순히 집의 그림 같은 외관이나 물리적인 편안함과 별개의 문제이다. 집은 무엇인가 피상적이고 덧대어진 의미보다 거주자가 하루하루 삶의 모든 역학을 따라 어떻게 거주하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가에 따라 분명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다(4). 이로써 세상의 작은 한구석이지만 우리에게서는 더없이 중요한 최초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집’은 나에게 가장 “친밀한 경험들”(Tuan 138)이 축적된 공간이자 애착이 담긴 공간으로 거듭난다. 그러므로 집에 대한 애착이 없다면 귀가의 절실함도 없을 것이다.

「이타카」에서 블룸의 집은 더블린의 북쪽 인근 예클레가 7번지이다. 현재 거기에는 삼십 대 중, 후반의 부부인 블룸과 그의 아내만 거주 중이고 딸인 밀리(Milly)는 공부를 하러 다른 지역에 나가 있다. 블룸의 아내

몰리(Molly)의 말처럼 평소 블룸은 외출하자는 어떤 회유에도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집안일을 선호”(U 18.506-7)한다. 게다가 아침에는 아내에게 아침을 차려 대령할 만큼 애처가의 면모도 다분하다. 당시 더블린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가정성의 소유자가 블룸이다. 이를 증명하듯 「이타카」외의 다른 에피소드들에서도 주요배경이 되는 블룸의 집도 다름 아닌 그의 동선과 시선을 따라 소개된다. 아침에는 집의 현관, 지하의 부엌, 침실, 정원 그리고 옥외변소 등의 장소가 등장한다. 이후 블룸이 스티븐과 귀가한 새벽녘에는 부엌, 식품 저장고, 응접실, 정원, 침실 등의 순서로 다시금 그의 동선과 시선을 통해 집의 요소요소가 세밀히 묘사된다. 이 일련의 장소들은 블룸이 제가의 질서의 수호자로서 회귀하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와 제 자리에 있는 모든 것”(U 17.1410)에 다름 아니다. 『율리시스』는 불과 하루의 이야기지만, 그 안의 블룸의 집은 바슐라르의 말처럼 그 주인이 얼마나 삶의 모든 역학을 따라 하루하루 필사적으로 뿌리를 내려 온 공간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1904년 6월 16일에도 외관상 블룸의 집은 전과 다름없이 조용하고 평온하다. 하지만 속사정은 바로 이날 오후 그의 아내가 불충을 저질러 제가의 질서가 무너진다. 보일런(Blazes Boylan)이란 남자가 오후에 집으로 찾아오기로 한 것이다. 이 예정된 만남을 이미 알고 있는 블룸은 태연을 가장하며 아침부터 서둘러 외출을 해, 미루고 미뤄서 깊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온다. 결과적으로 이날 블룸에게 집은 한걸음에 달려가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곳이다. 이처럼 「이타카」는 원전을 통해 익숙한 귀가의 주제를 다루지만, 원전과 달리 철저히 ‘의도적으로’ 귀가를 미루는 주인공의 모습은 그로부터 또 다른 주제들을 탐색케 한다.

「이타카」는 어떤 면에서 아버지와 갓 태어난 아들을 잃은 데 이어 아내마저 외부의 남자에게 빼앗긴 블룸이 지극한 외로움에 스티븐이라는 청년과 정신적 합일을 염원하며 그를 집으로 초대하는 데서 시작한다. 하지만 「이타카」는 사실상 처음부터 블룸의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희박함을 암시한다.

블룸과 스티븐은 돌아가면서 어떤 평행 코스를 따라갔습니까?
 다가가고, 떨어져서, 느긋한 걸음으로 그들은 조지 교회 앞에 활
 처럼 늘어선 집들을 양방향의 직경으로 가로질러 갔습니다. (U 17.1-9)

이 문답은 블룸과 스티븐이 마부 쉼터에서 나와, 걸어서 약 20분 거리의 블룸의 집으로 향하는 광경을 묘사한다. 이때 두 사람이 집들을 직경으로 가로질렀다는 말은 그들이 그것들을 우회하지 않고 호와 현이 만나듯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갔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평행 코스”이다. 블룸과 스티븐은 마치 평행선처럼 각각 ‘양방향으로’ 나란히 떨어져 간 것이다. 플레이시만은 이 도입부를 통해 조이스가 “두 명의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까워질 수 있을 뿐 결코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각 다른] 두 명의 사람이기 때문”(383)이라는 논제를 제시한다고 분석한다. 또한 그는 이 주제가 “인간관계의 덧없음과 그 한계”(383)에 대한 블룸의 각성으로 수렴된다고 설명한다. 절묘한 것은 이러한 주제가 철학자 레비나스의 주 관심사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특히 플레이시만은 레비나스와 별개로 「이타카」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 끝자는 레비나스의 핵심이론을 간파하여 조이스와 레비나스의 공통분모를 한층 공고히 해준다.

레비나스는 1960년대 초 조이스의 시각과도 일치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을 타자의 윤리학이라고 명명하여 본격 연구반열에 올린 학자로 이름이 높다. 조이스처럼 레비나스도 홀랜더가 명기하듯 타자에 대한 지배와 타자를 나와 같아지도록 동화시키는 개념인 “전체성”에 강력히 반대하여 나와 타자의 만남 그리고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의 차원에서 주체성을 재고한다. 그 과정에서 레비나스는 타자가 모든 익숙한 형태들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무한성의 개념을 소개한다(10). 전체성이 인류의 동질화 또는 획일화를 꾀했다면 무한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다름에 대한 포용을 꾀한다. 요컨대, 레비나스는 타자는 애초부터 나와 같아 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무한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데, 신기하게 조이스도 (엄밀하게는 그

보다 앞서) 같은 고민을 했던 것이다.

홀랜더에 따르면 과거의 전체주의자들은 집요하게 정확하고 분명한 답을 찾아 인류의 획일화를 추구했다. 빅토리아 시대까지만 해도 “타자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차이를 좁히고 공통성을 넓히는” 최상의 미덕처럼 인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전체주의적 태도에는 “다른 사람의 인간적인 복잡함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함정이 있다(2). 그에 대한 반향으로 레비나스의 무한성은 “다른 사람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 아는 것이 원래 우리의 능력 밖”(157)의 일임을 전제한다. 조이스가 누차 언급하는 “진공의 불확실성”(U 17.2210)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조이스와 마찬가지로 레비나스의 무한성에서도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

「이타카」의 서술자들은 상기한 주제를 뒷받침하듯 이야기의 첫머리부터 “네 개의 분리시키는 힘”으로 “이름, 나이, 인종, 신앙”(U 17.401-02)을 언급한달지, “두 언어[히브리어와 아일랜드어]와 두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접점이 존재”(U 17.745-46)하는지를 묻는 등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독 ‘차이’와 ‘공통점’의 문제를 염두에 둔 문답을 주고받는다. 두 사람이 쓰는 언어상의 접점을 묻는 질문에서 히브리어는 유대계인 블룸의 언어이고, 아일랜드어는 토박이 아일랜드인인 스티븐의 언어이다. 즉 이 질문은 히브리어와 아일랜드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묻는다. 답변은 억지스러울 정도로 세부적이거나 학자연해서 독자로서는 나열된 공통점들의 진위는 차치하고 의미조차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모호함만 남는 대답만으로도 남은 공통점 찾기의 귀추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을 예견할 수 있다.

한편,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것도 없이 줄곧 걷기만 한 스티븐은 여전히 피곤하고 블룸의 존재에도 큰 관심이 없다. 그 와중에 스티븐이 블룸의 숨은 의도를 간파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스티븐은 독자들에게 그와 블룸이 정신적 합일을 이룰 수 없음을 짐작케 하는 또 다른 신호를 보낸다. 애타게 스티븐과 공통점을 찾으며 암암리 자신의 유대인성을

의식하는 블룸의 앞에서 스티븐은 보란 듯 반유대주의 노래를 불러버린다. 이에 블룸은 재차 낙담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결정적으로 스티븐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고픈 속마음을 담은 “보호소 제안”(U 17.954)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날부로 당장 잘 곳이 없는 스티븐에게 블룸은 그의 집에서 자고 갈 것을 권한 것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스티븐이 “즉시, 설명할 수 없이, 상냥하게, 감사하게 거절”(U 17.955)하면서 스티븐과 하나가 되길 바라는 블룸의 소원은 무산된다.

블룸은 가까스로 집에 돌아왔지만, 그의 의식은 여전히 아내의 외도에 따른 혼란 속을 배회 중이다. 실상 그는 종일토록 “몰리에게 무관심하려는 욕구와 그녀의 사랑을 확신하려는 욕구 사이의 줄다리기”(Winterhalter 365)에 붙잡혀 있었다. 그가 집에 와서도 곧장 몰리가 있는 침실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의 복잡한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블룸은 그 내면의 불안과 외로움을 스티븐을 통해 상쇄하고자 했지만 끝내 그들의 동반 여정은 각각 “남은 자”와 “떠나는 자”(U 17.1214)가 되어 다시 “분리”(U 17.1220)되므로 갈음된다. 이때 주인 블룸은 자신의 욕구를 내쳐 관찰하는 대신 손님 스티븐의 욕구를 정중히 따른다. 이후 블룸과 스티븐은 환대의 최종단계로써 배웅과 작별을 겸해 집의 뒤뜰로 나온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초여름의 새벽하늘과 그 안의 별들이 시야 가득 들어온다. 무엇보다 이 별들은 블룸의 꽤 심오한 세계관을 투영할 뿐만 아니라 이때를 기점으로 그의 의식이 맞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들이, 이중의 검은 모습으로, 집 뒤쪽의 통로를 통해 어둠에서 정원의 반음영 속으로, 주인이 먼저 그리고 손님이, 조용히 나타났을 때 그들을 맞이한 광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축축한 밤의 푸른 열매가 열려있는 별들의 천상의 나무였습니다. (U 17.1036-39)

블룸은 스티븐과 그 “축축한 밤의 푸른 열매들이 열린 별들의 천상의 나

무” 곧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 단상들에 심취한다. 일견 이 어둡고 빛나는 공간은 그 적막함과 광활함만으로도 천문학 애호가인 블룸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이때 블룸과 스티븐을 맞이한 새벽하늘의 “축축한 밤의 푸른 열매들이 열린 별들의 천상의 나무”¹⁾는 작품의 가장 큰 백미로 꼽히는 표현들 중의 하나이다. 원래 이 장면은 조이스가 단테(Dante Alighieri)의 『신곡』(*Divine Comedy*) 중 「연옥」(“*Inferno*”)편에서 단테와 그의 안내자가 지옥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별들을 본 장면을 개작한 것이다. 아름답고 신비롭게만 보이는 이 장면이 실상 험난한 여정의 기점인 「연옥」과 이어진 것은 블룸에게 무한한 애착의 공간인 집이 이날만큼은 돌아가기가 두려운 공간이 되어버림으로써 시작된 그의 방랑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스티븐에게 “보호소 제안”을 거절당한 블룸은 굶하지 않고 또 다른 “대안”(U 17.960)들을 권했다가 거절당하기를 몇 차례 더 반복한다. 결국 이 “서로 자기 배제적인 제안들”(U 17.973-74), 다시 말해, 블룸이 제안을 할수록 두 사람을 더 떨어뜨리는 제안들은 블룸에게 과거의 유사한 경험들 곧 “반복된 좌절”(U 17.989)을 소급하여 그를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블룸은 “불평등과 탐욕 그리고 민족 간의 적대의 산물인 많은 사회적 상태들을 개선”(U 17.991-92)하려는 포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술자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그[블룸]는, 이런 조건들을 제거하면, 인간의 삶이 무한히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인간 전체에게는 불가결하고, 인간 규범과는 구별되는, 자연에 의해 부과되는 속 특유의 조건들은 남아있었습니다. (U 17.993-96)

1) 이 나무는 원래 말레이인들과 폴리네시아인들의 일부 민간신앙에서 “지하세계에서부터 지상을 거쳐 천상까지 자라나는 상상의 나무”이다. 단테는 작품에서 단테와 버질(Virgil)이 지옥을 탈출해 지상으로 올라와 별들을 보았다고 묘사하는데, 조이스는 이를 발전시켜 집 안에서 나온 두 사람이 “축축한 밤의 푸른 열매들이 열린 별들의 천상의 나무”를 보았다고 개작한 것이다(Slote et al. vol. 2, 1186). 풀어 말해 이 표현은 별들이 가득한 밤 풍경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대화의 요점은 결국 블룸은 “과학이나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Chinitz 435) 인간의 삶은 “완벽에 도달하기 어려움”(Chinitz 435)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개입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 말은 브라운이 전하듯 블룸이 한편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삶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75). 그러한 비전이 있었기에 블룸은 인간 조건의 개선을 몸소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어떤 면에서 블룸이 인간관계의 부조리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보려 시도하는 것도 그 일환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블룸은 인간이나 인간의 세상이 근본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완벽해질 수도 없다는 결론에 다가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블룸이 이러한 생각을 한 시점이 그의 위로 무한히 펼쳐진 광막한 하늘과 그 안의 별들에 심취한 때라는 점이다. 온갖 인간적인 고뇌에 차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막상 그 안의 별들은 무심히 블룸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블룸은 그 아래 인간의 삶에 대해 반추한다.

블룸은 그의 동반자에게 다양한 별자리들을 보여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 지극히 짧은 팔호 안에 할당된, [길어야] 70년 정도인, 인간 생애의 세월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는, 측정할 수 없이 먼 영겁의 세월로부터 무한히 먼 미래로 영원히 움직이는 방랑자들인, 이른바 고정된 별들의 변위 혹은 그 별들의 변위적인 표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U 17.1053-56)

블룸은 인간의 지략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심연을 상상하자 길어야 70년생을 사는 인간이 더없이 작고 유한한 존재처럼 보인다. 그 거대한 심연의 우주와 한 치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앞에서 인간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한편, 블룸은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영원히 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원히 움직이는 천상의 방랑자들이라고 한다. 블룸이 생각하듯 별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곧 변위의 문제이다. 호간의 설명에 따르면 변위는 지구가 회전하면서 별들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관찰점이 달라지듯이 다른 별들에 대한 하나의 별의 위치도 달라지는 현상이다(56). 요컨대, 별들은 한 곳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히 움직이고 있어서 어느 하나도 같은 자리의 같은 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이 무수한 별들은 그러면서도 서로 부딪치는 법이 없다.

궁극적으로 변위는 블룸 더 나아가 조이스와 레비나스의 주 관심사인 인간관계의 문제를 환유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이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믿는다. 단적으로 블룸은 오늘 스티븐에 대한 환대를 통해 이를 여실히 깨닫는다. 따라서 그 관계를 가능케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이해나 결합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 가운데서도 서로 부딪치지 않고 궤도를 도는 별들의 냉담함과 같은 적절한 거리두기일 수 있다. 하지만 세속의 삶은 갖은 충돌과 이탈 그리고 불협화음들로 가득하다. 때문에 블룸에게는 광활한 우주 아래 인간의 존재가 더욱 미미하고 유한해 보였을 법하다. 이처럼 블룸의 세계관은 좁고 한정된 인간세계를 뛰어넘어 광활한 우주로 확대된다. 재삼 강조하건대, 블룸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무엇보다 그의 온갖 노력에도 결국 스티븐과 완전한 합일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결정적인 단초가 된다. 이후 그는 스티븐을 보내고 홀로 정원에서 “태양계 우주공간의 찬 냉기”(U 17.1246)를 느끼며 하루를 돌아본다. 거기에서 블룸은 자신이 스티븐을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여 중국에 그와 하나가 되고자 했던 바람이 애초에 실현 불가능했음을 자각한다. 그 후 블룸은 애써 대면을 유예했던 외도한 아내 물리가 있는 집안으로 마침내 돌아간다.

레비나스는 “존재하는 것은... 거주하는 것이다... 거주는... 환대에 응답하는 ‘내면으로의 전향’, 나로 돌아오는 것”(156)이라고 역설한다. 그에 따라 “내면으로의 전향”은 “[나의] 요소세계들(환경)[으]로부터의

2) 레비나스 연구에서 번역이 모호한 대표적인 표현이다. 이 말은 『전체성과 무한』의 불어 원서에 쓰인 ‘정신의 집중’, ‘명상’, ‘심사숙고’, ‘모으기’라는 뜻의

철수이자 집의 친밀함으로 되돌아옴”(153)을 의미하는, 외부로부터의 “분리”(154)이다. 즉 내면으로의 전향은 개인 자체, 개인의 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세계가 유인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즉각적인 향유로부터 자유로워진 관심의 이동이다. 그 자유는 무엇보다 “거리”로부터 파생한다. 여기서 “거리”란 개인이 무관심의 영역에서, 진공에서, 쾌락의 신들이 사는 존재들의 사이에서 개인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인은 세계로부터 “퍼붓는 의식”(154)으로부터 떨어져 궁극의 “단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154). 이처럼 “거주의 친밀함을 통한 분리는 존재 간의 새로운 관계의 윤곽을 더욱 뚜렷하게 해 준다”(156). 아주 간단히 말해 거주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의식적인 ‘분리’를 통해 시도하는 세상과 나의 거리두기이다. 이 거리를 통해 나는 비로소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프루덴티는 「이타카」에서 중요한 것은 별이건 사람이건 그들의 “끝없는 움직임” 곧 “무한대”를 향한 “끝없는 탐험”이라고 분석한다. 프루덴티는 조이스가 이로써 경직되고 고정된 의미해석의 관행을 탈각한다고 본다(125). 한편 플레이시만도 블룸이 작품의 초 중반부까지도 인간과 인간의 삶이 완벽한 완성체이기를 갈망한 것은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을 찾기 위한 탐험”이라는 『율리시스』의 중요한 주제를 노정한다고 본다(389). 즉 『율리시스』는 블룸이 꿈꾸는 “플라워빌”(Flowerville)(U 17.1580)과 같은 그의 이상향을 찾는 여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절망적인 현실과 분투 중인 블룸은 그 이상향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한참 동안 별들을 응시하며 삶의 조건의 향상을 위한 계획에 골몰한 끝에 블룸은 그것이 “아무것도 알려진 방법이 없는 유토피아”(U 17.1140)

‘recueillement’를 영역한 ‘recollection’을 다시 한역한 것이다. 국내 레비나스 1세대 연구자인 강영안 교수는 레비나스 거주론에서 이 모든 뜻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데 역점을 두어 이를 “내면으로의 전향(복귀)”(138)으로 의역한다. 이 외에도 이 말은 ‘집중’, ‘회상’ 등 연구자마다 해석이 상이해서 통일된 용어는 없지만, 요점은 강영안 교수의 시각과 상통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recollection’의 한역은 강영안 교수의 번역을 따른다.

였다는 “논리적인 결론”(U 17.1137)을 내린다.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유토피아는 곧 그러한 이상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블룸에게 드높이 떠 있는 별들이 처음엔 단테와 버질을 지옥에서 지상으로 이끌어준 전설 속 천상의 나무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미약한 인간으로서 꿈은 꿀 수 있지만, 도달할 수는 없는 세계로 보인 것이다. 블룸이 몰리의 남자들을 떠올리며 모종의 미소를 지은 것도 이와 유사한 해석을 유도한다. 블룸은 몰리를 만났을 법한 남자들이 제각각 자기가 그녀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무이한”(U 17.2129)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무한대에서 시작해 무한대로 반복되는 순서에서”(U 17.2131)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고 유일무이하지도 않은 존재들이라고 한다. 엄밀히 블룸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람들이 연인관계에서 상대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무이한 존재로 남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을 가장 이상적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블룸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직시한다. 달리 말해 이제 블룸은 천상의 나무에서 내려와 “있는 그대로”(Fleishman 399)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불확실성의 진공에 대한 의식적인 반응자인, 그는 어떤 생각으로 그의 기분을 정당화했습니까?

... 승리의 또는 저항의 또는 해명의 공허함: 칭송받은 미덕의 어리석음: 불가지론적 문제의 무기력함: 별들의 냉담함. (U 17.2210-26)

스티븐이 떠나고도 정원에 한참을 서 있던 블룸은 마침내 “깊은 심호흡을 하며 [침실로] 돌아온다”(U 17.1270). 블룸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있어야 할 제자리’를 벗어난 물건들에 머리를 찡는다. 어김없이 보일런이 다녀간 흔적이 집안 곳곳에 남아있었다. 이에 블룸은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블룸의 최선책은 외도를 한 몰리에게도 보일런에게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Chinitz 436)이다. 블룸은 이를 한 마디로 “별들의 냉담함”으로 정당화한다. 블룸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닿을 수 없는 유토피아와 같다고 보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그것은 “진공

의 불확실성,” “불가지론의 문제” 즉, 영원히 알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에 의한 어떤 승리도, 저항도, 증명도, 고양된 미덕도 완벽할 수는 없고 종국에 공허한 울림만이 있을 뿐이다. 우주에 그토록 많은 별이 있음에도 그들이 상충하지 않고 무한히 유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냉담함에 연유한다. 블룸은 하물며 그 안의 지극히 작은 점과 같은 존재인 인간의 삶도 같은 섭리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곧 블룸이 임의로 계산하거나 속단하지 않고 의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블룸은 “만인”인 동시에 “무인”(U 17.2008) 즉 “모든 인간적 가능성의 원형”(Litz 398)으로서 진공의 불확실성을 “영원히 방랑”(U 17.2012)할 준비가 된 것이다.

블룸은 하루 동안의 그 모든 난관과 깨달음을 거쳐 탐험의 원점인 집으로 돌아온다. 블룸의 탐험이 모순으로 점철된 인간관계의 한계를 극복해 타인에게 닿기 위함이었다면, 그 잠정적 결말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의 귀환이다. 블룸은 그 불완전한 관계를 태초부터 불완전한 인간의 필연적인 조건으로써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블룸은 아직까지도 스티븐을 회유하거나 물리를 피하기에 급급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블룸의 귀가가 닫힌 결말이 아닌 까닭은 그 인간적 ‘유한성’에 대한 통찰에 있다. 블룸은 이에 고무되어 이제껏 애써 회피하거나 합리화해 온 인간과 삶의 복잡다단함에 한층 성숙하고 냉담히 다가간다. 이로써 블룸은 ‘진공의 불확실성,’ ‘무한대’로의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블룸의 무한대로의 향해가 가능한 것은 역으로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자각과 수용에 근거한다. 블룸의 귀가가 전설의 영웅처럼 극적이거나 웅망스럽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우스꽝스러울 때가 더 많아 블룸에게서 인간적인 친근함을 물씬 풍겨나게 한다.

레비나스의 역설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주에서 갑자기 툭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고유성으로 세상의 한구석을 밝히는 고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때,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필연적인 인간

조건으로써의 “다름”(Prudente 124)과 것처럼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한 ‘앓’의 문제에 냉엄한 성찰을 시도한 「이타카」의 공명 또는 그 역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III. 결론

「이타카」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인간관계 양상을 보여준다. 첫째는 블룸과 스티븐의 관계로 실상 그들은 10년도 전에 단 “두 번”(U 17.467)밖에 만난 적이 없는 타인들이나 마찬가지로이다. 두 번째는 블룸과 몰리의 관계인데, 이들은 여생을 함께해온 부부이다. 응당 부부라고 하면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듯이 타인들과는 다르게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의 한 유형으로 통상 이해된다. 두 관계의 중심에 있는 블룸은 현재 혈통을 구실로 한 사회적인 배척, 아들의 부재, 아내의 불충까지 특유의 낙천성 이면에 외로움이 마음 깊이 사무쳐 있다. 이는 블룸이 가족이 아닌 외부인을 통해서라도 정신적 연대를 갈망하는 이유로 짐작된다. 하지만 그 연대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은 정황상 공리에 가깝다. 결정적으로 블룸은 긴 시간 인간적으로 가장 가깝게 지내온 아내의 마음마저도 막연히 추론하고 자책할 뿐 정확히 모른다. 그는 굳이 캐묻지도 않는다. 하물며, 낯선 타인을 단 하루 만에 뻗속 깊이 이해하고 그와 일심동체가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독자도 그렇다. 『율리시스』에는 블룸의 나이, 직업, 습관, 기호, 심지어 키와 몸무게까지 실로 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럼에도 문득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는 블룸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Sicari 275). 인간의 지각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블룸이 스티븐과 동행한 귀가를 주목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블룸은 스티븐의 연대의 거절을 통해 바야흐로 관계의 평행선 비유적으로 ‘별들의 냉담함’의 이치를 유한한 한 인간으로서 이해한다. 이에 힘입어 블룸은 마침내 침실로 돌아간다.

유클리드는 평행선을 “같은 평면 위에서 두 방향으로 무한대로 그려도

어느 방향에서도 만나지 않는다”(Fitzpatrick 13)고 정의한다. 이 선처럼 스티븐과 블룸, 물리와 블룸, 타인이건 가족이건, 어느 관계에서도 완벽한 합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조이스의 인간관계에 대한 비전은 ‘다름’의 극복보다 ‘인정’으로 귀결된다. 이는 무엇보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유한함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 레비나스도 조이스와 같은 시각을 경주한다. 그에게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은 타자는 절대 나와 같은 존재로 환원될 수 없고 내가 완전히 알 수도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환대’이다. 전지전능함 밖의 인간에게 환대의 첫걸음은 ‘내면으로의 전향’ 곧 ‘거주’를 통한 부단한 “자기 정립”(강영안 138)이다. 즉,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로부터 불완전한 인간 조건을 부단히 깨닫고 객관화할 자기성의 근간을 쌓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남대)

인용문헌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05.
- 이종일. 「『율리시스』의 모험과 귀가의 주제」. 『제임스조이스저널』, 제13권 1호, 2007, pp. 135-52.
- Bachelard, Gaston. *The Poetics of Space*. Translated by Maria Jolas, Beacon P, 1994.
- Bonifazi, Anna. “Inquiring into Nostos and its Cognate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vol. 130, no. 4, 2009, pp. 481-510.
- Brown, Pamela. “Levinas in ‘Ithaca’.” *Partial Answers: Journal of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Ideas*, vol. 1, no. 2, 2003, pp. 61-86.
- Chinitz, David. “All the Dishevelled Wandering Stars: Astronomical Symbolism in ‘Ithaca’.”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 37, no. 4, 1991, pp. 432-41.
- Eide, Marian. *Ethical Joyce*. Cambridge UP, 2002.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Oxford UP, 1983.
- Fitzpatrick, Richard. *Euclid’s Elements in Greek: Book 1-4*. vol. 1, Lulu, 2005.
- Fleishman, Avrom. “Science in ‘Ithaca’.” *Wisconsin Studies in Contemporary Literature*, vol. 8, no. 3, 1967, pp. 377-91.
- Hogan, Patrick Colm. *Ulysses and the Poetics of Cognition*. Routledge, 2014.
- Hollander, Rachel. *Narrative Hospitality in Late Victorian Fiction: Novel Ethics*. Routledge, 2013.
- Joyce, James.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Vintage-Random House, 1984.
- Lawrence, Karen R. “Style and Narrative in the ‘Ithaca’ Chapter of Joyce’s *Ulysses*.” *ELH*, vol. 47, no. 3, 1980, pp. 559-74.
- Lee, Youngshim. “The Theme of ‘Home-coming’ in *Ulysses* and *One Day of a Novelist, Mr. Gubo*.” *James Joyce Journal*, vol. 21, no. 2, 2015, pp.

91-116.

- Levinas, Emmanuel. *Totality and Infinity*. Translated by Alphonso Lingis, Kulwer Academic P, 2013.
- Litz, A. Walton. "Ithaca."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ited by Clive Hart and David Hayman, U of California P, 1974.
- Prudente, Teresa. "'By Dot and Dash System': Punctuation and the Void in 'Ithaca'." *European Joyce Studies*, vol. 23, 2014, pp.109-27.
- Rosner, Victoria. *Modernism and the Architecture of Private Life*. Columbia UP, 2005.
- Sicari, Stephen. "Reading *Ulysses*: 'Ithaca' and Modernist Allegory."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 43, no. 3, 1997, pp. 264-90.
- Slote, Sam, et al. *Annotations to James Joyce's Ulysses*. vol. 2, Oxford UP, 2022.
- Stanford, W.B. "The Ulysean Qualities in Joyce's Leopold Bloom." *Comparative Literature*, vol. 5, no. 2, 1953, pp. 125-36.
- Tuan, Yi-Fu.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Space*. U of Minnesota P, 1981.
- Wilcox, Joan Parisi. "Joyce, Euclid, and 'Ithaca'." *James Joyce Quarterly*, vol. 28, no. 3, 1991, pp. 643-49.
- Winterhalter, Teresa. "Leopold Bloom's Dark Riddle: Joyce, Levinas, and the Storytelling Self."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 62, no. 4, 2016, pp. 359-78.

AbstractLeopold Bloom's Homecoming in "Ithaca" and Lévinasian Dwelling:
the Analogous View on Human Relations

Eunsook Park

This study assumes that James Joyce and Emmanuel Lévinas have an analogous view on human relations. The analysis of Joyce's homeward motif in "Ithaca" episode in *Ulysses*, along with Lévinas's ethics, as a sober reflection on the imperfectible inter-individual relations rather than a mere event of returning to home furthers this analogy. Leopold Bloom, the main character, makes his way home late at dawn after a day-long wandering, being obsessed by his wife's infidelity. He is accompanied by Stephen Dedalus whom he has eyed as his spiritual son. However, in fact, they are almost strangers to each other. Still Bloom tries to form a spiritual bond with his guest to offset his anxiety and loneliness. But he fails, and therein lies a truism. Bloom can't fathom the most intimate person to him—his wife—fully, much less a stranger. The same goes for the readers. Despite every information about Bloom, we never know him completely! Lévinas resonates with Joyce in respect to this theme. Since we're imperfect and finite beings in essence, according to Lévinas, the perfect and infinite knowledge is beyond our reach. But these limitations are easily overlooked. That's why we need to keep distance from the world through dwelling. Being separated from there, we can see the defective human conditions as they are.

■ Key words: “Ithaca,” Emmanuel Lévinas, homecoming, dwelling, human relations

(「이타카」, 레비나스, 귀가, 거주, 인간관계)

논문접수: 2022년 12월 01일

논문심사: 2022년 12월 01일

게재확정: 2023년 04월 08일